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허영만 토크콘서트' 성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섬문화 브랜드 구축에 기여

### 여미콘 이상철 회장 "각 섬 스토리텔링해 엑스포 콘텐츠로 활용해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허영만 토크콘서트'가 객석을 가득 메우는 높은 관심 속에 성료됐다.

지난 24일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 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주관으로 박람회 성공개최와 사전 범업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한국 민화계의 레전드 허영만 화백과 여수미래콘텐츠협회(이하 여미콘) 이상철 회장, 박준택 전남대 교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정태균 전문위원 등 전문패널들이 참여, 섬들에 대한 구수한 입담이 이어졌다.

이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섬의 과

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여 '여수 섬문화 브랜드'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 화백은 금오도 비렁길과 거문도 등대길을 여수의 최애 섬으로 꼽았으며, 여수의 대표 씨푸드인 가막만의 참꼬막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요리비법까지 공개하자 관객의 뜨거운 박수세례가 한동안 이어졌다.

허 화백은 또, "돌담의 이야기는 한번 훼손되면 살아나지 못한다"며, "섬에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고 꾸준하게 섬박람회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섬돌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여미콘 이상철 회장은 3만4천리 뱃길을 하루도 거

지 않고 노를 저어 딸을 통학시킨 가장도의 '모정의 뱃길' 영상을 소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회장은 "가장도는 못배움의 설움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애절한 자식사랑의 훈이 깃든 곳"이라며, "이런 애뜻한 사연이 담긴 섬들을 스토리텔링해 이번 엑스포 콘텐츠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철 위원장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안 여수 섬 발전의 미래비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내년에도 시민역량을 집해국·의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만, 여수가 고향인 허화백은 타짜, 백반 기행, 식객 등의 히트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 리메이크되면서 민화계의 지존, 한국민화

의 전설 등으로 불리며, 현재 왕성한 방송활동과 함께 여수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 터치 한 번으로 청사 안내 정보 '한눈에'...민원인 편의 증대



보성군은 지난 21일부터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배치도와 직원 배치도 및 담당

으로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를 알려주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청사 정문과 민원실 입구에 종합안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설치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돼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은 화면 터치로 손쉽게 각 부서의 좌석 배치와 담당자 사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서 출입구에 종이로 운영하던 직원 배치도도 키오스크로 변경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게 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서별 키오스크는 조작개편이나 인사이동 후 종이 조직도를 교체·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청사 안내 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 방문객과 직원들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광양시, 정부혁신 사례 국내 최초상 수상

###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U-수호천사 서비스 실시)



광양시는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인 'U-수호천사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 선정돼 국내 최초사례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는 정부혁신 사례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공모사업으로, 광양시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가 최초 사례로 선정돼 '국내 최초상'을 수상했다.

'U-수호천사 서비스'는 2007년 광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로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위치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보급해 거주

지역(안심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2009년부터는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서비스 대상을 늘려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 서비스로 발전했다.

현재 광양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혁신 최초사례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사례에는 ▲광양시가 선정된 'U-수호천사 서비스' 외에 ▲외교부 '정자여권 세계 최초 도입' ▲질곡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한국도로공사 '도로노면 색깔 유도선' ▲서울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서리풀 원두막)'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공공의료와 지역돌봄체제 전환 모색 전문가 특강

순천시는 지난 27일 순천문화회관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공직자, 관내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와 지역돌봄체제 전환 모색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

한 의료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체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민간독립연구소인 '시민건강연구소'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장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변화 추세 ▲ 국가적 인구감소에 대한 관점 ▲포괄적 노인 돌봄 체계 구성 ▲삶의 질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